

착유우사양 및 임신우관리

증식계장 김 재 학
(경기도종축장)

(전호 13면에서 계속)

6. 임신우 관리

1) 조사료 위주로 관리한다. 조사료의 질이 좋을 때는 조사료만으로 사육할 수 있으나 질이 나쁠 때는 농후사료를 2~3kg 급여한다.

2) 임신 5~6개월에 젖소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영양이 불량할 경우 농후사료를 1일 1~2kg 정도 증량한다.

3) 임신우에는 칼슘(Ca), 인(P), 소금등 광물질과 비타민A·D·E를 보충 급여하여야 한다. 광물질 공급을 위해서는 소금과 인산칼슘제를 2:1 비율로 섞어서 운동장, 방목지 등에서 자유 채식케 하며 겨울철동안에는 비타민이 부족되기 쉬우므로 비타민 첨가제를 급여하면 좋다.

4) 분만 2주 전부터 착유사료로 서서히 바꾸어 급여한다.

이상과 같이 임신축의 경우 비타민이 결핍되면 유산되거나 작고 비정상적인 새끼, 또는 연약한 새끼를 분만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번식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 D는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며 비타민 A는 모체조직 중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단기간

의 부족은 번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질사료를 급여하는 겨울철에는 특히 비타민 A가 부족되기 쉬우므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의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료와 여름철의 일조(日照)는 비타민D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 겨울철에는 일조시간이 짧고 또 사(舍) 내에서 사육하는 시간이 많아 결핍되는 수가 있으므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한편 비타민E의 결핍으로 모축의 번식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사료 중에는 비타민E가 충분한 양이 함유되어 있어 거의 결핍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임신 기간 동안 비타민 B군의 양적 증가의 여부는 아직 분명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비타민 B군은 에너지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되면 동시에 비타민 B군의 요구량도 증가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에너지 섭취량과 비례하여 비타민 B군의 급여량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번식기에 특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무기물은 칼슘, 인, 철 등이며 이들 무기물의 요구량은 에너지 요구량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임신초기에는 요구량이 적고 임신후기 1/5 기간에는 요구량이 급격하게 증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축이 요구하는 비타민과 무기물은 사양관리에 유념하여 반드시 보급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사료급여의 개선할 점

가. 조사료 급여

1) 농후사료에다 사일리지나 청초(절단하여)를 혼합해서 급여하지 말 것 (현재 일부 낙농가에서 혼합 급여하는 사례가 있음).

급여 순서는 농후사료를 급여한 다음 완전히 채식하면 사일리지를 급여하고 착유가 끝나면 건초나 짚 등을 급여토록 한다.

2) 송아지에게 양질의 건초를 급여할 것.



될 수 있으면 수분이 많은(청초기) 청초 보다 2일정도 건조시켜서 급여하는 것이 좋음(설사 방지).

그리고 일령이 적어도 반추상(反芻相)이나 그 전인 반추 전환상(反芻轉換相)기에 부드럽고 질이 좋은 건초를 급여하도록 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반추하지 않는 단계에서 반추하는 상태에의 전환은 분만후 8~12주 사이에 이루어 진다고 한다.

그 전환은 3가지로 구분 한다.

- ① 출생~21일령 : 비반추상(非反芻相)
- ② 22~56일령 : 전환상(轉換相)
- ③ 56일령이후 : 반추상(反芻相)

현재 우리나라 낙농가에서 송아지의 조사료 급여 특히 건초 급여량이 충분치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질이 좋은 건초를 충분히 급여함으로써 송아지 육성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사료(건초)를 풍부히 급여하는 사양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젖소 경제년한은 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착유전업의 사양상태에서 그 이전에

도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낙농가는 조사료위주의 사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농후사료 다급(多給)으로 인하여 경제수명이 짧아지고 번식장애 기타의 질병으로 손실이 많다.

조사료를 증산하여 합리적인 낙농경영을 해야 한다.

나. 농후사료 급여

1) 농후사료 급여는 착유우의 비유별(개체별)로 증감 급여할 것

일정한 평량용기(秤量容器)로써 해당되는 사료량을 정확히 급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유우의 적절한 사료급여는 다음 비유기의 높은 산유량의 열쇠이다.

개체별로 표찰을 해당 소앞에 부착하여 기록하면서 사양관리를 할 것(농후사료를 주는 양, 1일 산유량, 분만일자, 종부일자, 건유일자 등 필요한 사항 기록)

2) 분만일 2~3일전에 사료 급여량을 감할 것.

그리고 분만후 바로 급격한 사료의 증가는 좋지 못하다(어미소의 발열 등 건강상 좋지 못함)

즉 착유량을 많게 하기 위하여 무리한 증사(增飼)는 좋지 못한 것이다. (간혹 이런 낙농가를 목격할 수 있음)

다. 무기성분의 보급

카리(K)와 나트륨(Na)의 비율은 중요하다. 카리는 사료 중에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은 식염으로 보급해야 한다. 조사료 중에는 특히 카리 성분이 많다. 이 때문에 조사료를 주식으로 하는 초식가축은 비교적 많은 식염을 필요로 한다.

나트륨 즉 식염은 동물의 체액중에 함유된 조직액,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조장한다. 그리고 소화액중 알카리성을 보존하는 작용을 한다.

현재 일부 낙농가의 무기성분 보급체제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운동장에 자유로이 먹게끔 하는 시설이 없는곳이 많다. 더우기 여름에는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열사병 등의 방지를 위해 평시의 식염 급여량 보다 배정도로 보급해야 한다.

검해서 급수장치도 하여 언제나 자유로이 신선한 물을 먹도록 해 주어야 한다.